주요 내용

▌엔고가 주요 수출 업종에 미치는 영향 ▐

최근 엔고의 특징 및 전망

- (특징) 최근의 엔고는 과거에 비해 절상폭이 작고, 원高를 동반하며, 고유가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불리한 환경 요인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음
- (전망) 7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엔고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, 그 절상폭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. 1달러 = 100~120엔선에서 움직일 것임

주요 수출 업종에 미치는 영향

- (반도체) 단기적으로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으나, 엔고가 장기화되면 일본 업체의 채산성 악화 및 생산 축소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임
- (자동차) 단기적으로 일본 업체는 엔고의 영향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것임. 그러나 엔고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중소형차 중심의 수출 증대 효과가 크고, 수입선 다변화 조치 해제에 따른 수입 증대 효과도 축소될 것임
- (조선) 가장 큰 수혜 업종이며, 이미 7월 이후 수주가 크게 증대하고 있음. 엔고가 지속될 경우 수주 실적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

기업에 대한 시사점

- (엔고의 한시성) 이번 엔고 현상은 한시적일 가능성이 크므로, 수출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에는 신중해야 할 것임
- (수출 구조의 개선) 엔고 시기를 수출입선의 다변화, 현지 마케팅 망의 구축 등 수출 구조의 개선에 활용해야 할 것임

현안 분석

엔고가 주요 수출 업종에 미치는 영향

김 용 복

최근 엔고의 특징 및 전망

- **과거와 비교한 최근 엔고의 특징**
  - (작은 절상폭) 과거에는 엔/달러화가 약 50% 가량 절상되었으나, 최근 엔고는 약 25% 정도 절상한 데 그치고 있으며, 1달러 = 100엔이 되더라도 30% 절상 수준에 머물게 됨
  - (원高의 동시 진행) 과거에는 원화가 달러화와 연동되어 움직여서 원/100엔의 변동률이 70~100% 수준이었으나, 3차 엔고 시기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고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해 원/100엔 변동률은 20%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
  - (대내외 환경) 1차 엔고 시기에는 저금리, 저유가가 병행하여 3저 상황이 나타났으나, 최근에는 유가와 국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

< 80년대 이후 주요 엔고 시기의 변화 >

구분	시기	엔화의 절상률	원/100엔의 변동폭	한국의 수출증가율(연평균)
1차 엔고	85.2-88.11	52.7% (260.2→123.2)	73.6% (325.2→564.6)	20.0%
2차 엔고	90.4-95.4	47.2% (158.5→83.7)	103.8% (443.6→904.2)	9.0%
3차 엔고	98.8-현재	26.5% (144.4→106.2)	20.3% (941.5→1,133.1)	-2.2%(98.8-99.7 기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)

- **최근 엔고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, 그 절상폭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**
  - 엔화는 99년 7월 이후 강세로 반전하여 9월 17일 현재 104.95원을 기록하고 있음 (원/100엔 환율은 9월 17일 현재 1,202.5원임)
  - 최근의 엔화 강세는 일본의 경기 회복과 미국 경기 하락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, 내년 대선을 맞아 무역적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미국내에서도 엔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당분간 엔고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

· 그러나 급속한 엔고에 따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일본의 우려, 급속한 경기 침체 및 자금 유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로 선진국간 정책 협조를 통해 지나친 엔고는 저지할 것으로 예상됨

· 따라서 향후 엔/달러 환율은 100엔~120엔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

수출 전반에 대한 영향

- **단기적으로 엔고 효과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으며, 그 규모도 크지 않을 것임**

·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엔고 시기에 수출 상승에 의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등 엔고의 효과를 누려 왔음

· 98년 8월부터 시작된(실제로는 금년 7월) 엔고는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. 최근 1년간의 수출 실적은 -2.2%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

· 이같은 현상은 엔고 효과가 엔고 직후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, 더욱이 금년 상반기에는 엔화가 크게 절하되었기 때문임

주요 수출 업종에 대한 영향

- **대일 경합 품목중 한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, 승용차, 선박에 대한 영향을 살펴봄**

· 98년의 한국의 총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2.9%, 승용차는 6.2%, 선박은 6.1%로 세 품목(HS코드 4단위 기준)이 25.2%를 차지함

- **반도체 수출에 대한 영향**

· 반도체는 국제 경쟁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일본업체들이 당장 반도체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워 단기적으로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

· 엔고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국제 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을 축소하거나, D램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임

- **승용차 수출에 대한 영향**

· 한국 승용차의 수출 증대 효과는 일반적으로 엔고 4개월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고, 일본 업체가 당분간 환율 절상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대신 내부적으로 흡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
· 특히 일본 업체가 그 동안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, 생산성을 높여 엔고의 흡수 능력이 상승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
· 그러나 엔고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소형차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, 수입선 다변화 조치 해제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전망됨

- **선박 수출에 대한 영향**
· 가장 엔고의 효과를 크게 누리는 업종은 조선산업임. 금년 6월까지의 수주 실적은 2,818천 GT로 월 평균 500천 GT에도 못미쳤으나, 7월 1,019천 GT, 8월 745천 GT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
· 선박은 그 동안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이 일본에 거의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러, 엔고가 지속될 경우 1993년 이후 다시금 수주 실적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

시사점

- **수출 물량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에 신중해야 함**
· 최근 엔고의 수출 증대 효과는 과거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, 그것도 엔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능함
· 따라서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

- **엔고를 수출 구조의 개선에 활용해야 함**
· 엔고 시기는 수출선 및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할 호기이므로, 이를 통해 수출 채산성의 개선에 활용해야 할 것임
· 특히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해 있는 유럽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케팅 망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*(ybkim@hri.co.kr ☎ 724-4032)*